

조선 왕실 玉冊 內函의 17-19세기 변화양상 - 白骨, 金屬, 泥金書 등을 중심으로 -

김미라*

- I. 머리말
- II. 옥책 내함의 제작배경
- III. 옥책 내함의 특징과 변화
- IV. 옥책 내함 편년 연구의 활용 예
- V. 맺음말

I. 머리말

玉冊은 긴 막대 형태의 玉簡에 글을 새겨 금분으로 메우고, 그것을 여러 개 이어 한 판으로 만든 후, 그 판을 다시 여럿 중첩하여 엮은 책을 말한다. 국가적 의례에서 옥책을 사용한 자세한 기록은 唐代 제왕이 天地에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보이며, 황실에서 책봉이나 존호를 위한 의례용으로는 宋代부터로 전하고 있다.¹ 한반도에서는 부여에 관한 기록 중에 왕의 국장에 玉을 사용하였던 내용이 전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옥책을 언제부터 사용하였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고려시대 인종 장릉 출토의 옥책이 가장 오래된 예로 알려져 있다.

* 문화재청

¹ 춘추전국시대에도 천지에 제사를 지냈고, 周漢 이래로 황후태자를 세울 때 冊을 쓰는 제도가 있었음을 볼 때 실제 옥책의 사용은 훨씬 이전부터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조선 왕실에서 옥책은 왕비의 冊封과 왕과 왕비의 上尊號를 위한 의례를 위해 제작되었다. 필자가 본 논문을 통해서 다룬 내용은 바로 이 옥책을 담았던 函에 관한 공예와 회화사적인 측면의 고찰이다. 옥책을 담았던 함은 内外의 2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내함은 외함과 다르게 주철에 泥金 장식, 그리고 鍍金の 금속 장식을 한 화려함이 돋보인다. 경공장의 소목장·칠장·두석장 등과 니금 그림을 담당한 도화서 화원의 합작품으로, 시대 흐름에 따른 미술사적인 양식분석이 가능한 유물로 주목된다.

현재 고궁박물관에는 1545년-1900년 전반에 걸쳐 제작된 옥책과 그것을 담았던 옥책 내함이 250 여 점 전하고 있다. 옥책에는 제작 연도를 명기하였고, 옥책과 내함은 함께 제작되었기 때문에 내함의 제작 연도는 그 안에 담겼던 옥책을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즉 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옥책 내함은 300여년에 걸쳐 제작한 왕실 공예품으로, 제작 연도를 알 수 있는 방대한 수량의 편년 자료인 것이다. 더불어 옥책과 그것을 담았던 함에 관한 것은 『儀軌』를 비롯한 『宗廟謄錄』 등에서 상세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옥책 내함에 관한 연구는 고궁박물관 주관으로 <2013년 御冊 調査 事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² 당시 옥책과 내함은 긴 시간을 거쳐 오면서 옥책과 내함이 교체 혹은 대체된 경우가 섞여 편년 연구에 접근이 쉽지 않았다. 이에 조사 사업에서는 내함의 실측조사와 의궤 기록의 발췌, 그리고 유물과의 비교 검토의 작업 과정을 통해 내함의 제작 연도를 밝힐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이 2013년 조사 사업을 참여를 시작으로, 현재 1649년-1902년에 해당하는 120점의 옥책 내함의 제작 연도를 밝힌 상태이다.³ 때문에 본 논문을 17-19세기의 옥책 내함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6년 필자의 발표 논문에서는 옥책 내함의 제작 연도를 밝힘과 동시에, 시대 흐름에 따른 내함의 형식적 특징과 회화사적인 측면 등의 변화양상을 다각도로 고찰하고, 내함 제작에 참여한 장인과 사용된 所入 재료에 관해 살펴보았다.⁴ 그리고 옥책의 사용 연원과 역사적인 의미, 내

² 보고서를 통해 옥책 내함과 축책함·교명함의 조사 작업이 시작되었다. 옥책 내함의 실측과 100여 점의 예시를 들어 의궤 기록과 실물을 대조하였다. 김삼대자·김미라, 『2013년 어책 조사 보고서 2』(국립고궁박물관, 2013) 이와 함께 옥책 내용의 번역도 이뤄졌다. 김문식 외, 『조선왕실 御冊 조사 학술연구 결과보고서 1』(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원·국립고궁박물관, 2012); 『조선왕실 御冊 조사 학술연구 결과보고서 2』(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원·국립고궁박물관, 2013).

³ 필자는 2016년 2월 옥책 내함 102점의 제작 연도를 밝혔다. 이후 2016년 12월 수정 보완 연구로 120점으로 확인하였다. 김미라, 『朝鮮後期 玉冊 內函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6.2), pp.38-70; 김미라, 『조선왕실 옥책 내함 제작시기 연구』, 『古宮文化』9(2016.12).

⁴ 김미라, 『朝鮮後期 玉冊 內函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6.2).

함의 의례 과정에서의 역할을 살펴 옥책 내함이 갖는 미술사적 위상을 밝혀 보고자 하였다. 필자가 밝힌 옥책 내함의 변화 양상 중 니금화의 변화양상을 바탕으로, 얼마 전 그 도상의 상징적 의미를 밝히는 연구도 이뤄진 바 있다.⁵

본 논문은 2016년 2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특히 시대 흐름에 따른 옥책 내함의 변화양상에 중점을 두어, 미술사적 편년 연구로서의 연구 성과에 무게 중심을 두고자 하였다. 덧붙여 이에 준하여, 옥책 내함 외의 왕실 목공예품의 제작 연도 추정을 시도함으로써, 옥책 내함 편년 연구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옥책 내함의 연원과 의미를 찾아보고 그 제작 배경을 통해 왕실 역사 속에서 내함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 옥책 내함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어 3장에서 제작 연도를 알 수 있는 옥책 내함 120점의 형식 변화양상에 주목하였다. ‘白骨 구조·금속장식·泥金 그림 장식·漆面처리 상태·안에 바른 천의 5가지로 나누어 시대 흐름에 따른 변화양상을 설명하고, 표로 작성하여 요약정리 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3장의 편년 연구의 활용 방안의 시도로서, 1728년경 제작된 것으로 보는 오명항 영정을 담아 전하고 있는 <오명항 영정궤>와 고궁박물관 소장의 19세기 말로 전하는 흑장궤를 옥책 내함의 변화양상과 비교하여 제작 연도를 밝혀 보고자 한다.

옥책 내함의 시기별 변화양상을 정리 하고 이를 활용하는 예를 제시한 것은, 목공예의 편년 연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 공예사·회화사 등에 대한 다각도 연구의 한 방안을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옥책 내함의 제작 배경에 대한 고찰은, 옥책과 함께 왕실공예품으로서 옥책 내함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에 주목하게 될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옥책 내함의 제작배경

1. 옥책 내함의 의미와 유래

조선 왕실에서 왕비를 책봉하거나 왕과 왕비에게 상존호 할 때는 옥책과 주칠의 내함을 제작 하였지만, 왕세자 이하는 竹冊에 흑칠 내함을 만들어 차등을 두었다. 그만큼 옥책과 주칠 내

⁵ 유미나, 「조선 후반기 시책 내함의 니금 서수도 연구」, 『美術史學』 32 (2016. 8).

함은 특별했던 것이다. 중국에서는 일찍이 옥책은 하늘의 뜻을 적은 것이라 하여 함부로 열거나 볼 수 없는 귀중한 것임을 기록해 두기도 하였다.⁶

본장에서 볼 옥책과 그 함의 유래를 찾아보는 것은, 왕실에서 옥책을 사용하게 된 연원을 밝히고 또 중국 옥책함과 같이 있는 비교 연구 등의 후일 연구를 위해서 중요한 시작이 될 것으로 본다.

옥책이 국가적인 행사에서 처음 쓰였던 흔적은 중국 고대 封禪禮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조선왕실에서 옥책을 사용하게 된 연원을 찾아 볼 수 있다.⁷ 이유는 봉선례의 의식 과정이나 당시 사용되었던 옥책 함을 장식한 소재 등이 조선 왕실의 경우와 매우 흡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봉선례는 帝王이 하늘과 땅에 지냈던 의식을 말하는데, 그 과정은 제왕이 옥책을 읽고 나서 그것을 함에 단단하게 봉하여, 祖廟에 봉안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절차는 조선의 국가의례 과정도 마찬가지인데, 옥책을 함에서 꺼내 읽고 다시 봉한 후 마지막에는 종묘에 봉안하는 것이 주요 절차이다. 봉선례 과정에서 옥책 즉 귀중한 뜻을 봉하기 위해 사용한 소재는 옥 궤와 금궤·금줄과 金泥였고, 조선 왕실의 경우는 泥金 그림을 그린 내함과 그 내함에 도금한 자물쇠가 그 역할을 하였다. 즉 옥책을 봉하는데 금을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 옥책을 봉했던 궤 혹은 함에 사용된 장식 문양도 일치하였는데, 이것은 대만 고궁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옥책과 함께 출토된 옥책 함으로 보이는 옥편들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대만 소장 옥책은 당송 시대의 것들로, 그것을 담았던 함으로 보이는 옥편들의 장식을 보면, 용봉과 꽃문 등 조선왕실의 옥책 내함 장식 소재와도 부분적이지만 일치하고 있다.⁹ 즉 조선 왕실에서 옥책을 올리며 치른 상존호와 책봉의식은 중국 고대의 봉선례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이전의 옥책으로는 고려시대 인종의 것이 유일하게 전하고 있다.¹⁰ 당시 옥책을 넣

6 김미라, 위의 논문, pp. 23-24.

7 김미라, 위의 논문, pp. 24-29.

8 의궤에 '봉과식(封裹式)' 항목에서 옥책을 봉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봉과식은 옥책을 여러 겹의 비단에 싸고 비단 끈으로 묶어 내함과 외함에 넣어 자물쇠로 봉하는 의식을 말한다. 《肅宗仁敬王后仁顯王后仁元王后加上尊號都監儀軌, 1754년》, 〈封裹式〉: 三房 儀軌 造作秩, '책보 封裹 하는법' 『국역정조국장도감의궤 3』 (민속원, 2005), pp. 65-66; 김미라, 위의 논문, p. 28.

9 대만 고궁박물관 소장의 〈唐玄宗及宋眞宗禪地祇玉冊〉(1931:民國 20년)은 출토품으로 봉선례에서 사용되었던 옥책으로 전한다. 那志良, 「唐玄宗及宋眞宗禪地祇玉冊」, 『古玉論文集』(1983), pp. 145-146; 鄧淑蘋, 「唐宋玉冊及其相關問題」, 『故宮文物月刊』 106 (1981), pp. 17-19; 張麗端, 「宋眞宗禪地玉冊及玉嵌片」, 『故宮文物月刊』 200 (1999), pp. 104-105; 옥편 형태 설명은 김미라, 위의 논문, pp. 29-30 참조.

10 고려의 冊으로서 형태를 알 수 있는 유물은 일제시대에 발견된 「仁宗諡冊」(玉冊)이 유일하고, 기록으로는 다음을

있던 함도 존재하였겠지만, 함에 대한 기록이나 유물은 전하는 바가 없다. 조선 초에 玉冊函에 絲金을 장식 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조선 초까지는 매우 화려한 면모를 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뿐이다.¹¹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확인되는 1600년 중반부터의 조선 후기 옥책 내함에는 조선 초의 기록과 같은 사금을 사용한 예는 없다. 하지만 붉은 주칠로 마감하고 금속장식을 도금하였으며, 밑판을 제외한 5면에는 니금으로 화려한 장식을 하여 왕실의례에 합당한 함으로 제작하였다. 니금 그림 장식은 龍과 海馬·螭虎 혹은 雙鳳과 梅竹蘭蕙가 주된 소재로 사용되었다.

전하지는 않지만 옥책의 사용이 봉선례에 연원을 두었다면, 일찍부터 옥책과 함에 발전해 왔을 우리 왕실의 옥책함은, 중국 황실에서 사용했던 옥책함과 비교할 때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역시 주목되는 점이다. 그런데 필자는 아직까지 중국 황실의 옥책함을 문헌기록 외에 실물은 확인해보지 못했다. 실물을 통한 연구는 후일로 미루고, 일단 기록을 통한 중국 황실의 옥책함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宋元의 황제·황후·황태자의 옥책함은 모두 금으로 隱起의 龍鳳을 주칠 함에 장식하였고, 금으로 된 자물쇠로 잠겼다.¹² 明代에는 황제의 것은 송원시대와 마찬가지로 주칠 함에 금으로 은기의 용봉문 혹은 누금한 용봉문을 주칠 함에 장식하였는데, 황후와 황태자의 것은 나무로 된 함에 蟠龍을 금분으로 장식하여 차이를 두었다.¹³ 이는 조선 왕실의 옥책 내함의 장식과는 크게 차이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조선왕실에서는 용과 해마, 혜호 혹은 쌍봉과 매죽, 난해의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였고, 돌출된 형태의 隱起가 아닌 평면적인 니금 장식을 하였던 것이다.

즉 조선왕실의 국가 의례에서 사용한 옥책과 함의 연원은 중국 고대 봉선례에서 찾을 수 있으며, 조선 초에는 사금 등으로 현존의 내함보다 더 화려한 장식의 옥책함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1600년 이후의 옥책 내함은 주칠함에 니금을 사용해서 용봉 외에 다양한 소재의 장식문양으로 꾸몄는데, 이는 중국 황실에서 상존호와 책봉을 위해 만들었던 옥책함과 구별되는 형식으로 발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참조할 수 있다. 최연식, 「고려시대 국왕문서의 종류와 기능」,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 2000), pp.37-55; 최승희,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지식산업사, 1989), pp.57-62; 『高麗史』卷二十四 世家 卷第二十四 高宗 43年 참조.

¹¹ 『성종실록』 122권, 11년(1480년) 10월 6일. '왕비의 옥책함을 대왕 대비의 봉선례에 따라 검소하게 장식하도록 하다'

¹² 『髹飾錄』, 『隱起描金』에 의하면, '은기' 기법은 칠기에서 문양의 높낮이를 표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¹³ 김미라, 위의 논문, pp.30-37.

2. 옥책 내함의 역사적 위상

옥책과 내함이 제작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당시 옥책 내함이 왕실 공예품으로서 어떠한 의미와 의의를 가졌었는지 밝혀 줄 것이다. 편년 유물 각각에 대한 제작 배경의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대략적인 제작 배경만을 요약하여 그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년 유물을 중심으로 옥책 내함 제작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다음의 8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①왕이나 왕비가 승하 하여 諡號를 올릴 때, ②왕비를 책봉할 때, ③왕이 승하 하면서, 세자빈이 왕비로·왕비가 王大妃로·왕대비가 大王大妃로 왕실 내에서 직위가 바뀌게 되었을 때, ④왕이나 왕실 어른이 즉위한지 오래되었거나 장수하였음을 기념할 때, ⑤當代 왕의 공덕을 높이기 위해 왕과 왕실 어른들에게 존호를 올릴 때, ⑥새로운 왕이 세자 신분의 生父를 왕으로 추존하고자 할 때, ⑦당대의 왕이 정치적 명분을 높이기 위해 前王이나 先王에게 상존호할 때, ⑧수렵 청정을 한 대왕대비의 공덕을 높이기 위해 존호를 올릴 때이다.¹⁴

즉 조선 왕실은 옥책을 올리는 의례를 통해, 왕실의 위계질서를 확인할 뿐 아니라 왕실의 공훈을 높이고 왕권을 공고히 하고자하였던 것이다. 제작 배경 8가지 중 ①-④까지는 책봉과 왕이나 왕비가 승하한 경우 등 국가 의례로서 갖춰야할 순차적인 의식과정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⑤-⑧의 경우는 성격이 다르다. 당대 왕이 자신의 정치적 명분이나 건실한 왕권을 표방하고자 하는 성격이 보다 강하다. 즉 전자는 '의례적인 성격', 후자는 '왕권강화의 성격'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편년 유물을 중심으로 옥책 내함의 제작 배경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시대흐름에 따라서도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변화 시점은 肅宗 전후로 숙종 이전에는 '의례적인 성격'의 옥책만을 올렸다면, 숙종 이후부터는 '의례적인 성격'의 옥책뿐 아니라 '왕권강화' 성격의 옥책을 다수 올리기 시작하였다는 차이점을 보였다. 숙종은 260년 만에 定宗의 廟號를 올리고, 단종과 단종비를 부묘하였으며, 태조와 태종에게 존호를 올렸다. 이는 종묘를 정립하고, 위화도 회군을 조선 건국의 성업으로 공표하여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다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즉 숙종 자신의 왕권강화를 의도한 상존호였던 것이다. 심지어 1713년에 숙종은 스스로 존호를 받는 이례적인 의례를 통해 군주로서의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고자하기도 하였다.

¹⁴ 책봉과 상존호의 역사적 의미에 관한 선행 연구는 다음을 참조. 서울대학교 규장각, 『규장각소장의궤 해제집 1-3』(2003-2004); 同著 『규장각 소장 분류별 의궤 해설집』(2005).

英·正祖 시기는 효종-현종-숙종의 적통 왕위 계승과는 구분된다. 불안한 왕위 계승으로 영정조는 재위 초부터 왕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했던 시기였다. 그 한 방편으로 영조는 당대에 스스로 5차례나 존호를 받은 바 있으며, 그 외 상존호 역시 자신의 부왕인 숙종과 영조를 중심으로 한 왕실 가족들을 위한 것들이었다.

정조는 생부 대신 영조의 둘째 아들 孝章世子의 아들로 입계하여, 즉위 하자마자 효장세자를 眞宗으로 추존하였다. 이는 자신의 왕위 계승이 적법함을 표방하기 위함이었다. 이어 정조는 영조의 뒤를 이었음을 알리는 뜻으로 영조와 정성왕후와 정순왕후의 존호를 수차례 올렸는데, 특히 정순왕후에게는 5차례나 존호를 올렸다. 또 한편으로, 정조는 자신의 생부의 추존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1795년에는 생부인 장헌세자와 혜빈에게 존호를 올리면서, 세자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죽책이 아닌 옥책과 주칠의 옥책 내함을 제작하기도 하였다.¹⁵

純祖 이후 고종까지는 수렴청정기에 들어서면서 대리청정을 맡았던 대왕대비에게 다수의 옥책이 제작되었다. 철종 때에는 심지어 喪中의 순원왕후에게 존호를 올리는 특이한 경우도 있었다.¹⁶ 특히 철종과 고종 연간에는 눈에 띄게 단시간에 많은 옥책을 올렸는데, 이는 왕이 後嗣 없이 승하하면서 嗣王을 세우는데 대왕대비가 깊이 개입했던 당시 시대적 상황과 직결된다. 예를 들어, 고종은 문조(文祖: 翼宗)의 후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고종 연간에 문조에게 올린 존호는 10차례나 되었던 것이다.

즉 왕실에서 옥책을 사용한 상존호 의례는 왕실의 적통성과 합법성을 확인하여 왕권을 강화시키는 한 방법이었고, 여기에 사용된 옥책과 옥책 내함은 바로 그 매개가 되는 상징물이었던 것이다.

Ⅲ. 옥책 내함의 특징과 변화양상

연구자는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250여점의 옥책 내함 중, 120점의 제작 연도를 밝힌 바 있다.¹⁷ 제작 연도를 알 수 있는 편년 유물 중 最古의 것은 <1649년, 仁祖 玉册 内函>

¹⁵ 장헌세자의 옥책 내함에는 니금으로 용을 그려 장식하고 1700년대 후반 왕의 시책 내함에서만 보는 도금장식을 하여 당시 제작에 특별한 관심을 쏟아 장헌세자의 위치를 높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眞純王后, 莊獻世子, 惠嬪尊號都監儀軌 9 13316. 1795년>, <내함> 참조.

¹⁶ 김종준, 「1859년(철종 10) 순원왕후의 부모와 순원왕후부모도감의궤」,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서울대학교 규장각, 2003-2004), pp. 95-96.

¹⁷ 주 3 참조.

>과 <1651년, 仁祖妃 仁列王后 玉册 内函>의 2점으로, 전자는 용·해마·혜호의 니금 그림을 그린 예로 가장 초기의 예이고, 후자는 니금 그림으로 쌍봉·매죽·난혜를 그린 것이다. 이로부터 <1902년, 文祖·文祖妃 神貞王后 玉册 内函 등>에서까지 보는 옥책 내함 120점에 관한 변화양상을 살피고, 이를 요약하여 도판 표를 작성하고자 한다.

옥책 내함의 형식 특징은, 백골의 구조·금속 장식·니금 그림 장식·칠면 처리 상태·함 안에 바른 천의 5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도 1). 아래에서 이 5가지를 중심으로 그 변화양상을 고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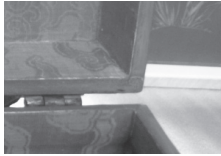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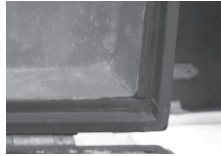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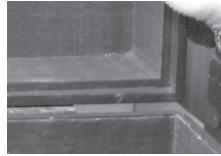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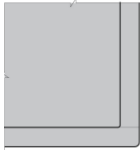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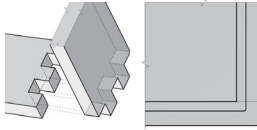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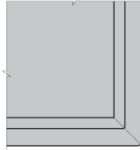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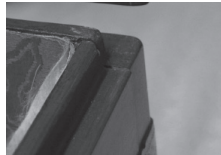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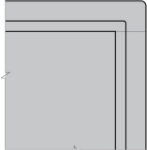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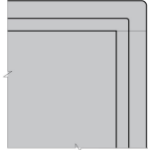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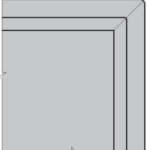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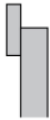


- ① 백골: 뼈대를 만들고 칠을 하지 않은 木器나 木物.
- ② 백골 구조: 맞담과 연귀맞담, 뚜껑받이와 반턱의 구조.
(뚜껑받이와 반턱은 뚜껑을 닫았을 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③ 낙목: 상자 형 가구에서 뒷개부분에 손잡이 역할을 함.
자물쇠를 거는 고리역할을 하는 배목까지 길게 내려와 끝부분은 둥글게 말아 배목과 함께 자물쇠 굽대에 걸게 되어, 뚜껑과 몸체를 잠글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의 금속장식.
- ④ 배목: 자물쇠 굽대를 끼기 위해, 혹은 낙목이나 손잡이를 연결하기 위한 'ㄱ'형의 금속 장식.
- ⑤ 낙목/배목 바탕: 백골에 낙목과 배목이 박히는 자리를 고정하고, 장식하는 금속장식.
- ⑥ 사각 앞바탕: 낙목과 배목 바탕 대신의 사각 금속 장식.
- ⑦ 경첩: 뚜껑·몸체를 연결하고 뚜껑을 여닫을 수 있도록 하는 금속 장식.
- ⑧ 감잡이: 백골 결구 부분을 보완하고 모서리를 보호 혹은 장식하는 금속 장식.
- ⑨ 니금 그림 장식: 니금의 안료로 표면에 그림을 그려 장식한 것.
- ⑩ 밀판 결구: 함의 밀판과 몸체가 결구되는 방식을 볼 수 있음.
- ⑪ 칠면 처리 상태: 표면의 칠이 박락된 부분에서 칠 아래 처리 방식을 볼 수 있음.
- ⑫ 함 안에 바른 천: 함 안에는 종이를 배접한 비단을 발랐음.
- ⑬ 운두: 뚜껑의 측면.

도 1 <옥책 내함의 각 부분>

1. 백골구조

1600년 중반의 유물 즉 편년 유물 중에서 초기에 해당하는 유물들은 뚜껑과 몸체를 만들 때 각 백골의 접합 부분의 단면이 ‘—’자형으로 된 ‘맞댐’을 하고, 몸체와 뚜껑이 만나는 부분에는 얇고 좁은 나무를 둘러 댄 ‘뚜껑받이’를 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이 1700년대 중반에 오면 뚜껑받이 대신 반턱이 생기고, 몸체와 뚜껑의 백골 구조는 ‘—’자형의 맞댐 형에 내부를 사개로 짠 구조가 보인다. 이러한 백골의 구조는 1700년 후반까지 보이다가, 1800년 이후부터는 다시 변화한다. 반턱을 하고 백골은 연귀 맞댐 즉 45°로 붙이는 변화를 보였다(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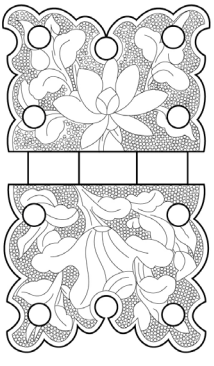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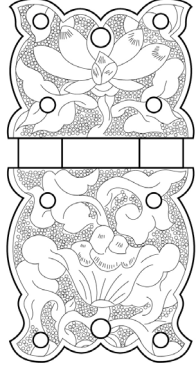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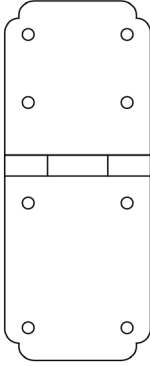

〈표 1〉〈백골 구조〉

기법	맞댐/뚜껑받이	맞댐/반턱짜임	연귀맞댐/반턱짜임
시기 구분	1649-1740년	1747-1776년	1778-1902년(1795은 예외)
뚜껑 부분 도판			
단면 도면			
몸체 부분 도판			
단면 도면			
측면 도면			

2. 금속 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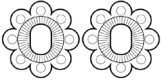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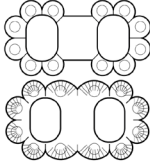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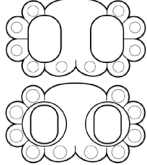

금속장식 중에서도 경첩과 배목바탕에서 특히 그 변화가 확연하게 보인다. 경첩은 6곡으로 제작되어 1724년까지 유지되다가 1740년 편년유물부터는 4곡으로, 1800년 정조 국장 시책 내함 다음부터는 사각 형태로 뚜렷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800년대 중반부터는 사각 경첩을 백골에 부착하면서 두 개의 금속선을 사용하는 ‘동사묶음’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표 2).

〈표 2〉 〈금속장식: 경첩〉

기법	6곡경첩(1724제외)	4곡경첩	사각경첩	사각경첩+(동사묶음)
시기 구분	1649-1724년	1740-1800년	1802-1837년	1848-1902년
경첩 모양				

배목 바탕 역시 후기로 갈수록 장식이 단순화한다. 1600년대의 것을 보면, 내환이 겹쳐 있는 꾀국화동 2개가 몸체에 붙었는데 그 모양이 누비 모양 주름에 꽃잎마다에는 둥근 점을 찍은 타출 장식을 하였다. 그것이 1740년 유물에서는 내환이 사라진 2개의 홀국화동을 이어서 붙이는 변화를 보였고, 1750년대 유물에서는 1개의 타원형으로 변화한다. 1770년대 후반-1800년에는 누비 주름 장식도 하지 않기 시작하였으며, 위나 아래 부분을 불룩하게 한 변형 배목 바탕이 보였다. 1800년 이후로는 앞서 본 경첩과 마찬가지로, 사각 앞바탕으로 변화하여 더 이상 별개의 배목바탕은 나타나지 않게 된다(표 3).

〈표 3〉 〈금속장식: 배목바탕〉

기법	간격 있는 접국화동	간격 없는 홀국화동	하나로 이어진 홀국화동	변형된 하나의 (겹)홀국화동	사각앞바탕
시기 구분	1649-1702년	1740년	1750년대/1795년	1776-1800년	1802-1902년
배목 바탕					

그런데 위의 시대 흐름에 따른 형식 변화 양상이 일률적인 규칙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각 앞바탕은 1800년 이후에만 나타난다고 하였으나, 〈1724년, 경종 옥책 내함〉처럼 1800년 이전에 사각앞바탕으로 된 사례적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1724년, 경종 옥책 내함〉의 사각앞바탕에 조 이질 된 연꽃과 연잎의 장식이 1600년대-1700년대 초반의 옥책 내함에 나타나는 장식이며, 뒷면의 6곡 경첩 또한 이것이 1800년대 유물이 아님을 입증한다. 때문에 편년 유물을 이해하고 변화 양상을 읽기 위해서는, 한 가지 특징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밝혀 둔다.

3. 니금 그림 장식

니금 그림은 옥책 내함의 밑면을 제외한 나머지 5면에 그려졌는데, 1800년을 기점으로 하여 왕의 국장에 제작되는 시책 내함 외에는 더 이상 니금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예외적인 경우로 1899년·1902년의 옥책 내함에 니금 그림이 그려지기도 하지만, 쌍용과 단용·구름문만을 그렸으며 도상이 매우 작아지고 문양화 되어 변화 양상이 뚜렷하였다.

장식의 주요 도상은 (쌍)용·해마·혜호와 쌍봉·매죽·난혜의 2가지이다. 그 변화양상을 요약하면 〈표 4〉, 〈표 5〉과 같다. 1899년·1902년의 경우 해마와 혜호를 그리지 않았지만, 윗면에 용을 표현하였기 때문에 (쌍)용·해마·혜호의 분류에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1) (쌍)용·해마·혜호

용·해마·혜호를 그린 경우는 편년유물 중 <문조 옥책 내함, 1835년>을 제외하고는 왕의 국장 시책 내함만으로 한정되어 있다.

① (쌍)용

뚜껑 윗면에 그려진 도상이다. 편년 유물 중 最古인 1649년 유물은 2줄의 외곽선 안에 한 마리의 용과 용을 둘러싼 구름문 그리고 윗면 네 귀퉁이에 놓인 구름문을 그렸다.

2줄의 외곽선은 1724년부터 나타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사각에 그려진 구름문은 <현종 옥책 내함, 1674년>부터 꽃그림으로 바뀌게 된다.

다음으로 용 표현에 주목해 보면, 1649년에는 單龍이었지만 <효종 옥책 내함, 1659년>부터는 쌍용으로 바뀌고 상승하강의 좌우 배치로 표현된다. 1674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려졌는데, <숙종 옥책 내함, 1720년>에서는 상승하강형의 좌우 배치 쌍용이 데칼코마니처럼 마주하는 변화가 생긴다. <경종 옥책 내함, 1724년> 역시 1720년과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지 않다가 <영조 옥책 내함, 1776>에 오면 좌우의 쌍용이 상하로 변화하였다. <정조 옥책 내함, 1800년>은 1776년과 같은 형태로 유지 되고, <순조 옥책 내함, 1835년>에는 1800년의 것에 비해 외곽선이 안쪽으로 그려져 화면을 대폭 축소하였다. 그리고 용을 둘러싼 능형선과 사각의 꽃 그림도 1835년부터는 그려지지 않는다. <철종 옥책 내함, 1864년>은 보다 많은 변화를 보여 준다. 변형된 능형으로 1835년보다도 좁은 화면을 만들고, 그 안에 간략한 쌍용과 구름을 그렸다. 그런데 이 유물에 관해서는 제작 연도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밝혀두며 자세한 내용은 후일로 미룬다.¹⁸

그 외에 용 그림은 1899년, 1902년에 볼 수 있는데, 도식적인 문양화를 보이며 작아진 쌍용과 구름문만을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생략되었다.

② 해마

함 몸체 부분의 두 면에 그렸다. 초기에는 2줄의 외곽선을 뚜껑의 운두 부분과 몸체 부분으

¹⁸ <철종 옥책 내함, 1864년>은 필자의 앞선 논문에서 1864년 제작의 유물로 선별하였다(김미라, 위의 논문, p. 66; 김미라, 「조선 왕실 옥책 내함 제작시기 연구」, 『古宮文化』9 (2016. 12), p. 51). 그런데 재검토 과정에서 완전하게 같은 유물이 2점임이 확인되었으며, 몸체에 그려진 혜호가 호랑이 형태로 그려져 이전의 '혜호' 도상에서 너무 급격한 변화를 보이기 때문이다.

로 나누어 구획하고, 운두에는 구름문·몸체에는 해마와 구름문·파도문을 그렸다.

1674년에는 2줄의 외곽선이 운두와 몸체를 별도로 구획하지 않았고 <경종 옥책 내함, 1724년>부터는 외곽선이 사라졌다.

해마 그림은 1649년·1659년에는 뚜껑 면의 용처럼 五爪로 표현한 것이 특징적이고, 바탕 면에는 문양화 된 파도문과 구름문을 그렸다. <현종 옥책 내함, 1674년>부터는 해마의 발이 오조가 아닌 말발굽으로 표현되고 파도문 없이 구름문만 그려졌다. <영조 옥책 내함, 1776년>에서는 보다 큰 변화가 생기는데, 해마가 쌍으로 마주보는 구도이며 아래쪽으로 편중되게 그려진 것이다.¹⁹ 해마 아래에는 파도문이 다시 그려졌는데, 이전의 일정한 패턴 형태가 아니라 일렁이는 파도 형태로 묘사 하였다. <순조 옥책 내함, 1835년>에는 안쪽으로 들어 그린 2줄의 외곽선으로 화면을 대폭 축소하는 변화가 보이며, 이것은 <철종 옥책 내함, 1864년>으로도 이어지는 변화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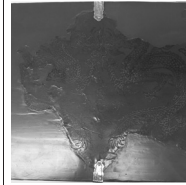

③ 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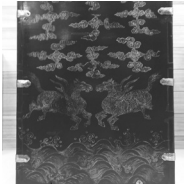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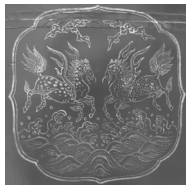





혜호를 그린 면의 장식은 앞서 해마의 변화양상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준다. 혜호는 <인조 옥책 내함, 1649년>에서 구름에 싸여 앞으로 걸어나아가는 상상의 동물로 표현하였는데, 1659년-1724년에는 함의 보다 좁은 화면인 측면에 위치하면서 몸체가 가늘어지고, 위에서 내려오거나 서 있는 듯한 형상으로 그려졌다. 1776년과 1800년에는 한 마리가 아닌 쌍으로 표현되는 변화를 보인다. 쌍혜호는 해마와 마찬가지로 아래로 치중된 축소된 화면에, 마주보고 있으며 위로는 구름문이고 아래에는 파도문이 생겨난다. 1835년에는 바탕에 파도문 없이 구름문만 나타나고, 쌍혜호가 상승하강형으로 그려져 특이하다. 1864년의 것은 쌍호랑이·구름문·山을 그려 급격한 변화양상을 보였다.¹⁸







해마·혜호가 그려지는 면은 함의 앞뒤좌우 중 일정한 위치에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은 도상을 맡은 각 화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생긴 현상으로 추측된다.

¹⁹ 『국조상례보편』이 편찬된 후, 즉 영조-철종 시책 내함에는 『국조상례보편』의 「내함」도설의 도상을 따르고 있다. 도설에는 쌍해마와 파도문·구름문이 그려있다. (『국조상례보편』, 「請諭宗廟儀」)

〈표 4〉 〈쌍용·해마·혜호 니금 그림 장식〉

그림 소재	〈龍〉			
잇면				
연도	1649년(인조)	1659년(효종)	1674년(현종)	1720년(숙종)
2줄 외곽선	有	有	有	확인불가
용의 배치	단용	昇降·左右 쌍용	昇降·左右 쌍용	마주보는 쌍용
4 각	구름문	구름문	꽃문	확인불가
잇면				
연도	1724년(경종)	1776년(영조)	1800년(정조)	1835년(순조)
2줄 외곽선	無	無	無	변형 2줄 외곽선
용의 배치	마주보는 쌍용	上下 쌍용	上下 쌍용	上下 쌍용
4 각	花紋	花紋	花紋	無紋
잇면				
연도	1864년(철종)	1899년(순조)		
2줄 외곽선	변형 2줄 외곽선	無		
용의 배치	上下 쌍용	上下 쌍용		
4 각	無紋	無紋		
그림 소재	〈海馬〉			
앞뒷면				

연도	1649년(인조)	1659년(효종)	1674년(현종)	1720년(숙종)
2줄 외곽선	有(운두 몸체 구분)	有(운두 몸체 구분)	有(운두 몸체 합침)	확인불가
운두 그림	구름문	구름문	구름문	확인불가
해마 표현/바탕문	單海馬·五爪/ 파도문·구름문	單海馬·五爪/ 파도문·구름문	單海馬·말발굽/ 구름문	單海馬·말발굽/ 구름문
앞뒷면 혹은 양측면				
연도	1724년(경종)	1776년(영조)	1800년(정조)	1835년(순조)
2줄 외곽선	無	無	無	변형 외곽선
운두 그림	有	無	無	無
해마 표현/바탕문	單海馬·말발굽/ 구름문	雙海馬·말발굽/ 구름문 파도문	雙海馬·말발굽/ 구름문 파도문	雙海馬·말발굽/구 름문 파도문
앞뒷면 혹은 양측면				
연도	1864년(철종)	1899년(순조)		
2줄 외곽선	변형 외곽선	無		
운두 그림	無	無		
해마 표현/바탕문	雙海馬·말발굽/ 구름문 파도문	無(龍만 나타남)		
그림 소재	〈螭虎〉			
앞뒷면 혹은 양측면				
연도	1649년(인조)	1659년(효종)	1674년(현종)	1720년(숙종)
2줄 외곽선	有(운두 몸체 구분)	有(운두 몸체 구분)	有(운두 몸체 합침)	확인불가
운두 그림	有	有	有	확인불가
해호/바탕문	單螭虎/구름문	單螭虎/구름문	單螭虎/구름문	單螭虎/구름문

앞뒷면 혹은 양측면				
연도	1724년(경종)	1776년(영조)	1800년(정조)	1835년(순조)
2줄 외곽선	無	無	無	변형 외곽선
운두 그림	有	無	無	無
혜호/바탕문	單螭虎/구름문	雙螭虎/ 구름문, 파도문	雙螭虎/ 구름문, 파도문	(昇降左右) 雙螭虎 / 구름문
앞뒷면 혹은 양측면				
연도	1864년(철종)	1899년(순조)		
2줄 외곽선	변형 2줄 외곽선	無		
운두 그림	無	無		
혜호/바탕문	(화면축소)쌍호랑이/ 구름문, 山 표현	無(龍만 나타남)		

2) 쌍봉·매죽·난혜

① 쌍봉

뚜껑 면에 그려지는데, 시책 내함의 뚜껑 면에 그려진 용 그림만큼 다양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현재 제작 연도를 알 수 있는 옥책 내함 중 最古의 예인 1651년 유물은 2줄의 외곽선을 두르고, 그 안쪽에 능형과 쌍봉을 상하로 배치하였다. 사각에는 꽃그림을 그렸다. 쌍봉을 에워싼 바탕에는 구름문으로 채웠고, 쌍봉의 늘어트린 다리까지 묘사하며 봉황의 자태를 상세하게 그려내었다.

2줄의 외곽선은 편년 유물에서 1698년부터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1795년에 예외적인 경우가 보일 뿐이다.

외곽선 안의 쌍봉은 1681년 편년 유물부터는 좌우 배치로 변화한다. 그 묘사도 1681년부터는 동적인 묘사는 하지 않게 되며, 1700년대 후반에는 쌍봉의 깃털과 자세 등이 단순화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쌍봉의 사각에 배치된 꽃그림은 주로 모란꽃으로 볼 수 있는데, 1740·1747·1752년에 제작된 <숙종비 인원왕후 옥책 내함>에는 이례적으로 국화문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꽃그림은 쌍봉 그림에서 초기부터 니금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1713년에는 사라지기도 하고, 1784년 1795년에는 도안화 되는 변화를 보이기도 하였다.

② 매죽

옥책 내함의 앞뒤 면에 그렸는데, 다른 면의 그림들에 비해 회화적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적이다. 1651년에는 모서리를 따라 그린 2줄의 외곽선이 뚜껑의 운두와 몸체 부분을 별도 구획하고 운두에 구름문을 채워 그렸는데, 1681년부터는 2줄의 외곽선을 별도 구획하지 않고 운두의 구름문은 사라진다. 그리고 1698년부터는 2줄의 외곽선도 그리지 않는다.

먼저 매화는 1651년의 것을 보면 굴곡이 심하고 맨 위의 나무 가지가 2-3개로 갈라져 길게 뻗는 형태가 특징이다. 이러한 유형은 1683년과 1698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뻗어 나가는 가지의 굵기나 방향에만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유물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그 외 눈에 띄는 것은, 1750년대의 유물에서 보는 일정하지 않은 방향의 가지 표현이나 1784년·1795년의 나무 질감의 색다른 표현 정도이다.

대나무는 대부분이 매화와 함께 그려졌고 아랫부분에 치중된 구도인데, 1651년 유물에서는 이례적으로 매화와 분리하여 뒷면 전체에 잎의 끝이 뾰족하고 길며 풍성하게 표현하기도 하였다. 1681년부터는 매화와 한 면에 그려지면서 매화 아랫면에 부수적으로 위치하게 되고, 1698년-1795년까지 유물에서는 짧은 잎이 특징적이다. 일부 유물에서는 매화와 비슷한 비중으로 그려진 경우도 있었는데, 1683년 독특한 대각선 구도의 대나무 그림이나 1740년·1747년·1750년대의 잎이 크고 거칠게 표현된 예들이 이에 속한다.



도 2 <숙종상조후 옥책 내함> 앞면과 뒷면, 1713년, 44.5cm(높이), 41.2×27.4cm(너비×길이),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도 3 <백자철화매죽문호>, 41.3cm(높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옥책 내함에 그려진 회화적인 매죽 그림은 비슷한 시기의 사군자를 그린 회화나 왕실 제작의 도자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1651년 옥책 내함의 대나무 그림은 조선 중기 瀾隱 李璣의 대나무와 비교할 수 있으며, 1713년 옥책 내함의 매죽 그림은 비슷한 시기 추정의 철화 백자에 그려진 매죽 그림과도 견주어 볼 수도 있다²⁰(도2·도3). 때문에 제작 연도를 알 수 있는 옥책 내함은 이러한 회화사적인 사료로서도 활용가치가 매우 주목됨을 알 수 있다.

③ 난해

내함의 양 측면에는 꽃송이들과 난초가 함께 표현되는 ‘난해’가 그려져 있다. 2줄의 외곽선의 변화는 앞서 본 매죽을 그린 면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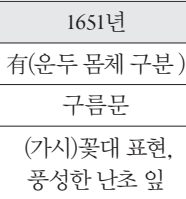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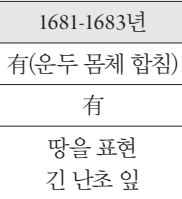
초기 난해 형태는 둥근 꽃송이·꽃이 떨어진 꽃대·곡선으로 꺾이는 풍성한 난초 잎이 특징이다. 1681년 1683년에는 난초 잎이 길고 만개한 여러 송이의 꽃을 표현하거나 1683년의 유물에 서와 같이 땅을 그려 넣는 다양성을 보인다. 긴 난초 잎과 만개한 여러 개의 꽃송이를 한 난해는 1795년까지 비슷하게 그려졌다. 그런데 1740-50년대는 유독 꽃을 그리는 것에 주력하는 표현 양상도 보였다.

즉 제작 연도를 알 수 있는 옥책 내함에서 보는 매죽·난해의 경우, 회화적인 표현으로 당시 화풍이 반영되기도 하고 다양한 회화적 표현도 시도되어 시기별 뚜렷한 변화양상으로 요약되지는 않았다.

〈표 5〉〈雙鳳·梅竹·蘭蕙 니금 그림 장식〉

그림 소재		龍			
윗면					
연도		1651년	1681-1683년	1698-1784년	1795년
니금 그림	2줄 외곽선	有	有	無	有
	쌍봉배치	上下	左右	左右	左右
	표현	회화적 표현	회화적 표현	회화적 표현·도안화	도안화
	사각(四角)	회화적 꽃그림	회화적 꽃그림	有 혹은 無	도안화된 꽃그림

²⁰ 이선옥, 「조선중기 매화도 화풍의 특징과 영향」, 『미술사학연구』 249 (2006), pp. 5-35; 백인산, 「조선시대 목죽화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pp. 69-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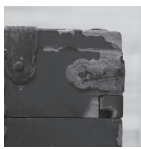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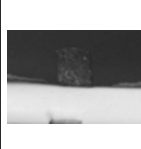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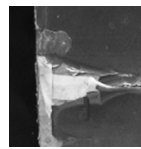
그림 소재		〈梅竹〉		
앞뒷면				
				
연도		1651년	1681-1683년	1698-1795년
니 금 그 림	2줄 외곽선	有(운두 몸체 구분)	有(운두 몸체 합침)	無
	운두그림	구름문	有	無
	매화	심한 굴곡 2-3개 긴 가지 강조	左同 유형 (1683 예외)	左同 유형(1698 예외)
	대나무	매화와 별도 배치 풍성한 잎	매화와 같은 면	매화와 같은 면 앞이 짧아지고 키가 작아짐.
그림 소재		〈蘭蕙(蘭草)〉		
양측면				
				
연도		1651년	1681-1683년	1713-1795년
2줄 외곽선		有(운두 몸체 구분)	有(운두 몸체 합침)	無
운두 그림		구름문	有	無(1784년 1790년 제외)
난해		(가시)꽃대 표현, 풍성한 난초 잎	땅을 표현 긴 난초 잎	꽃송이 위주(1740-50년대) 긴 난초 잎(1784, 1795년)

4. 漆面의 처리 상태

내함 중 일부 칠이 박락된 부분에서 그 처리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편년 유물 모두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인 변화양상은 구분할 수 있었다.

수리 복원 작업이 되어 확인이 불가한 1720년의 것을 제외하고, 초기부터 1724년까지는 흰 베나 모시로 싸개하고 두터운 골회를 발랐다. 이후에도 1747년·1750년대의 유물은 베싸개를 하였지만, 1740년의 유물처럼 종이를 바른 경우도 생겨났다. 1776년·1784년·1795년의 1700년대 후반에는 베싸개는 보이지 않았고 종이만 사용되었는데, 간혹 종이가 찾아 볼 수 없는 경우도 보였다. 1800년 이후에 오면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두 면이 만나는 접합 부분에만 종이를 바르고 칠을 올렸으며, 1888년 편년 유물에서와 같이 종이 없이 바로 칠을 한 경우도 일부 확인되었다(표 6).

〈표 6〉〈漆面의 처리 상태〉

漆面 박락 부분 도판						
	1651(베)	1740(종이)	1752(모시)	1778-1888년(없음)	1795년(종이)	1859년(종이)
연도	1649년-1713년	1720-1750년대		1776-1902년		
처리 상태	베싸개+ 골회+칠	모시 혹은 베싸개+골회+칠 종이+골회+칠		종이+골회+칠/ 골회+칠		

5. 안에 바른 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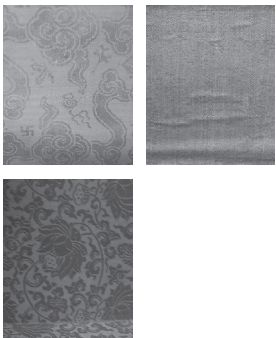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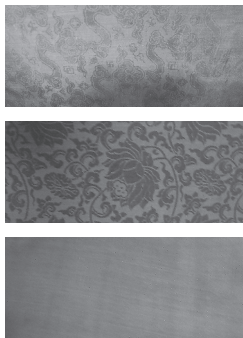

내함 안에는 종이로 배접한 비단을 발라 두었는데, 이 비단도 시대 흐름에 따른 변화양상을 보였다. 먼저 초기에는 기하하적인 무늬를 바탕문으로 하고 꽃무늬를 더한 꽃문단이나 말린 구름을 크게 표현한 운문단·큰 운문과 칠보문이 어우러진 칠보운문단·모란을 닮은 연화를 직조한 연화단이 보였다. 그러다가 1713년부터는 말린 구름을 크게 표현한 운문단이나 기하하적인 무늬를 바탕으로 한 유문단은 나타나지 않게 된다. 1753년의 편년유물에서 말린 구름을 크게 표현한 운문단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이며 대개 말린 구름이 작게 변화한다.

1700년대 후반 정조대에 오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무문주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1795년

경모궁과 혜빈·영조비 정순왕후에게 올린 옥책 내함에는 예외적으로 칠보운문단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경모궁과 혜빈이 당시 세자와 세자빈의 신분이었음에도 정조가 옥책을 올린 것과 통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²¹

1800년 이후부터는 무문주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간혹 유문단이 보이다가, 1866년부터는 유문단은 사라지고 무문주만이 확인되었다(표 7).

〈표 7〉〈안에 바른 천〉

도판			
연도	1649-1698년	1713-1795년	1800-1902년
종류	① (칠보)운문단 (운문 크기가 큼) ② 기하학문+화문 단 ③ 연화문단	① 칠보운문단 (운문크기가 작음) ② 연화문단 ③ 무문주	① 대부분 무문주 ② 일부 유문단 (작은 운문의 칠보운문단 등)

IV. 옥책 내함 편년 연구의 활용 예

옥책 내함의 편년 연구를 옥책 내함 외의 목공예품의 제작 연도를 밝히는 사료로서 활용해 보고자 한다. 그 예로 옥책 내함처럼 국가가 주도하여 제작한 목조함으로, 공신상인 오명항(吳命恒, 1673-1728)의 영정을 그린 〈오명항 영정궤〉와 어진을 담았던 〈흑장궤〉의 두 점을 들어보았다.

1728년 경 제작된 오명항영정과 그것은 담은 영정궤가 경기도 박물관에 소장되어 전하고 있

²¹ 정조는 생부인 장헌세자에게 죽책이 아닌 옥책을 올렸고 내함은 주철에 용의 니금화를 그렸는데(주15참조), 때문에 그 안에 바른 천도 검소한 무문주가 아닌 화려한 천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다. 공신상을 제작할 당시 기록인 《奮武錄勳都監儀軌, 奎 14935》에 의하면, 1등 공신인 吳命恒를 비롯하여 2등 공신 朴纘新, 朴文秀, 李森, 趙文命, 朴弼健, 金重萬, 李萬彬 그리고 3등 공신인 李遂良, 李益秘, 金浹, 趙顯命, 李普赫, 權喜學, 朴東亨의 15명을 위해 국가에서 영정과 畫像櫃를 만들었다.²² 경기도 박물관 소장의 오명항 영정은 그 중 한 점으로 알려져 있으며, 함께 전하고 있는 〈오명항 영정귀〉 역시 1728년 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아직 확실한 근거자료는 밝혀져 있지 않다.

먼저 기록을 보면, 《奮武錄勳都監儀軌, 奎 14935》에서 화상귀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소임 재료와 수량, 제작 과정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내용은 칠을 바르는 공정과 함 내부에 바른 천 혹은 종이의 종류, 낙목과 배목 등의 금속장식에 관한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영정귀에 칠을 올리면서 백휴지를 사용했고 함 안에는 청룡화를 발랐으며, 금속장식으로 둥근 환을 달아 끈을 매달 수 있도록 제작 하였다고 하였다.²³ 그런데 실측에서 안에 바른 푸른 종이는 기록과 일치하였지만, 그 외 칠면 처리에는 백휴지가 아닌 베싸개가 확인 되었고 끈을 매달 수 있는 둥근 환도 없어 기록과 차이가 있었다. 때문에 제작 연도를 추정하기에 확실한 근거로 보기는 어려웠다.

이에 〈오명항 영정귀〉와 옥책 내함과의 형식 비교분석을 통해 제작 연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옥책 내함의 편년유물은 시대 흐름에 따른 뚜렷한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 8)은 〈오명항의 영정귀〉와 〈옥책 내함의 편년유물〉의 형식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표 8〉 〈옥책 내함과 오명항 영정귀 형식 비교〉

	백골 구조	금속장식(배목바탕)	금속장식(경첩 조이장식)	칠면 처리상태
오명항 영정귀	맞댐	누비주름+타출+접국화동	연꽃 연잎 어자지문	베싸개
옥책 내함	맞댐	누비주름+타출+접국화동	연꽃 연잎 어자지문	베싸개
	1740년 이전	1740년 이전	1800년 이전	1770년대 이전

²² 1728년(영조 4) 4월부터 이듬해까지, 이인좌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오명항 등 15명의 공신들의 녹훈 내용과 그들에게 시상한 기록으로 錄勳都監에서 편찬하였다.

²³ 《奮武錄勳都監儀軌, 奎 14935》, 〈별공작의귀〉에서 “畫像櫃十五部各長以木尺四尺三寸廣六寸高五寸五分二房相議次每部所入椀板一立式全漆三合式每漆二合四夕式松煙一兩式太末二升式眞末三合式炭末二升式魚膠三兩式阿膠二兩式裏次白休紙二兩式炭四斗式澆漆苧布九尺正布八尺雪綿子四兩五錢初度魚膠漆二度阿膠眞末交合裏白休紙三四五度太末骨炭灰末魚膠水合着漆七度磨正後着全漆八度磨正後着每漆豆錫粧師所入豆錫一斤八兩式積貼二介式落目二介式廣甘佐非十四介式以上并起畫釵丁二介式排目一介式小頭丁二十八介式菊花童大小各八介式圓環二介式釵丁纓子紫的獐皮各二條里內塗則二房” 〈二房 戊申五月〉에서, “畫像櫃子內塗青綾花次敦厚草注紙二張” 라고 하였다.

위에 따르면, <오명항 영정궤>는 1740년 이전의 형식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명항 영정궤>와 옥책 내함이 완전히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금속장식과 칠의 공정 등에서 매우 흡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비교 검토가 가능하였다. (표 9)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금속장식 중 ‘감잡이’는 옥책 내함의 경우 1698년까지 어자지문 없이 음각선만이 조이되다가 1713년 이후부터 음각선과 함께 어자지문이 나타났는데, <오명항 영정궤>의 감잡이에 어자지문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698년-174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오명항 영정궤>는 형식 특징으로 볼 때 적어도 1740년 이전에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또 하나의 예시로, 국립 고궁박물관에 19세기 말로 전하는 <흑장궤>를 보도록 하겠다. 어진을 담았던 함으로 길고 좁은 형태로 제작된 이 <흑장궤>에 대한 문헌 기록은 명확히 찾을 수는 없지만, 1872년 《太祖元宗御眞移摸都監儀軌, 奎 13998》이나 1900년 《太祖肅宗英祖正祖純祖文祖憲宗景弼眞摸寫都監儀軌, 奎13990》에서 영정과 함께 제작된 궤의 기록과 비교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²⁴ 하지만 제작 연도 추정에는 무리가 있는데, 이에 옥책 내함의 형식과 비교분석을 통해 그 제작 연도를 추정해보면 아래와 같다.

〈표 9〉 옥책 내함과 흑장궤 형식 비교

	백골 구조	금속장식 (낙목)	금속장식 (경첩/앞바탕)	칠면 처리 상태
고궁박물관 소장 흑장궤(19세기 말)	연귀맞댐과 반턱	사각말림	사각경첩에 동사뭉음/ 사각앞바탕	베싸개 없음
옥책 내함 (1888년)	연귀맞댐과 반턱	사각말림	사각경첩에 동사뭉음/ 사각앞바탕	베싸개 없음

(표 9)의 1888년 옥책 내함의 형식 특징 중 끝이 사각으로 말린 낙목 형태는 앞선 시기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며, 사각 경첩에 동사뭉음을 한 것도 이 시기 특징이다. 그런데 19세기 말로 전하는 흑장궤 역시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즉 국가 주도 제작의 목조함의 경우 사용 용도에 따른 형태 차이는 있지만, 백골 구조와 금속장식·칠면 처리 상태의 시대 변화양상은 옥책 내함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 된다(표 10). 때문에 이 흑장궤는 19세기 말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²⁴ 〈粟目〉·〈圖說〉, 《太祖元宗御眞移摸都監儀軌, 奎 13998》, 1872년; 「黑長櫃」·「黑長櫃 7부에 들어가는 물품」, 『국역 영정모사도감의궤』, 국립고궁박물관 고문헌국역총서 제 1책 (민속원, 2013), p. 198·p. 273.

〈표 10〉〈흑장계와 옥책 내함의 각부분 비교〉

	19세기 말 흑장계	1888년 옥책 내함
사각앞바탕/ 사각말림 낙목		
사각 경첩/ 동사뭉음		

위의 예들은 극히 일부이고, 현재 파악된 옥책 내함의 편년 유물만으로 제작 시기를 추정하는 것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옥책 내함의 편년이 내함 외 국가 제작의 목조 공예품의 시대 변화양상과 같은 궤를 하고 있다는 예시로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질 것으로 본다. 앞으로 옥책 내함 편년 연구의 한 활용방안으로서, 왕실공예품에 대한 편년 연구가 보다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V. 맺음말

조선 왕실에서는 왕비의 책봉과 왕과 왕비의 상존호를 위한 국가 의례를 치르면서 옥책과 그것을 담았던 목조함을 함께 제작하였다. 현재 국립 고궁박물관에는 옥책 내함이 옥책과 함께 250 여 점 전하고 있다. 필자는 옥책 내함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의궤를 바탕으로, 250점 중 120점의 제작 연도를 밝힌 바 있다. 본 논문은 이 120점을 기준하여 시대 흐름에 따른 형식 변화 양상에 주목한 것이다.

옥책 내함은 경공장과 도화서 화원이 참여하여, 화려한 주칠과 니금 장식을 하였다. 특히 시책 내함의 경우는 도금한 금속장식까지 더하여 제작된 왕실 공예품이다. 내함의 형태분석은 백골 구조와 금속장식·니금 그림 장식·칠면 처리 방법·함 안에 바른 천의 5가지를 기준으로 하

였으며, 1649년-1902년까지의 옥책 내함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변화양상은 표로 작성하여 요약하였는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백골구조는 시대 흐름에 따라 맞담에서 연귀로·뚜껑받이 제작에서 반턱 구조로·백골을 제작하는 기술의 발달로 보다 복잡한 구조로 변화하였다. 이에 반해 금속장식은 단순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경첩과 배목바탕에서 확연한 변화를 볼 수 있었는데, 장식이 간소화되어 가다가 1800년 이후부터는 사각형으로 통일되는 양상을 보였다. 니금 그림 장식도 1800년 이후부터는 사라졌는데, 그 이전까지는 (쌍)용·해마·혜호와 쌍봉·매죽·난해의 두 가지 패턴으로 밑면을 제외한 5면에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특히 (쌍)용·해마·혜호의 경우는 시대에 따른 변화양상이 뚜렷하게 보였고, 니금 그림 장식이 사라진 1800년 이후에도 왕의 시책 내함에 지속적으로 그려졌다. 이것은 왕의 시책 내함에는 금속 장식도 이전 시기와 같이 도금을 하여, 보다 오랫동안 古式을 유지하던 사실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함 표면의 칠을 처리한 방법을 보면, 베싸개 또는 모시 싸개로 백골을 싼 것이 1700년대 후반부터는 종이로 바르거나 혹은 그대로 칠을 올리는 방식으로 변화했음이 확인되었다. 함 안에 바른 천 역시 유문단에서 1700년대 후반부터는 대부분 무문주를 바르는 것으로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변화양상의 추이는 필자가 선별한 제작 연도를 파악한 편년 유물만으로 한정하여 살펴 본 것이지만, 시기 구분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은 가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그 활용의 예시를 들어, 옥책 내함의 편년연구가 그 외 다른 국가 제작의 목조함의 제작 연도를 밝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를 시도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일부에 한한 것이지만 목공예품의 편년을 이해하는데 한 기준 자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더불어 본 논문에서는 옥책과 내함이 쓰인 국가 의례 과정에서 내함의 역할을 짚어보고, 옥책 내함이 제작되었던 시대적 배경을 살펴 옥책 내함에 대한 이해 또한 넓히고자 하였다.

300년에 걸쳐 제작된 250 여 점의 수량,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방대한 의례 자료는 옥책 내함 연구의 미술사적 가치를 충분히 강조하고 있다. 필자의 옥책 내함에 대한 편년 연구를 시작으로 앞으로 왕실 목공예품을 비롯하여, 금속 공예·칠공예·회화사 등 다방면에 걸친 연구와 활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주제어(key words)**_옥책 내함(Inner Cases for Books Made of Jade), 시책 내함(Inner Cases of books of posthumous titles), 왕실 공예(crafts for the royal court), 목공예 편년(production years of wooden crafts), 금속 공예(metal crafts), 니금화(painting with powered gold and glue), 의궤(Royal Protocols)

참고문헌

1. 사료

『開元禮』

『景宗國葬都監儀軌, 규 13566』, 1725년.

『高麗史』

『高宗神貞王后孝定王后明成王后加上尊號都監儀軌, 규 13473』, 1890년.

『高宗神貞王后孝定王后明成王后加上尊號都監儀軌, 규13475』, 1888년.

『端宗定順王后復位祔廟都監儀軌, 규 13503』, 1699년.

『大明集禮』

『明史』

『文祖神貞皇后高宗明憲太后明成皇后上號都監儀軌, 규 13430』, 1902년.

『奮武錄勳都監儀軌, 奎 14935』, 1729년.

『宋史』

『肅宗·仁敬王后·仁顯王后·仁元王后上尊號都監儀軌 규 13294』, 1754년.

『肅宗仁敬王后仁顯王后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 규13267』, 1713년.

『純元王后神貞王后尊崇都監儀軌, 규 13376』, 1837년.

『純元王后神貞王后孝定王后尊崇都監儀軌, 규 13385』, 1851년.

『純祖國葬都監儀軌, 규 13669』, 1835년.

『純祖純元王后上號都監儀軌, 규 13344』, 1827년.

『純祖純元王后翼宗神貞王后上號都監儀軌, 규 13348』, 1848년.

『承政院日記』

『神貞王后孝定王后尊崇都監儀軌, 규13437』, 1859년.

『英祖, 貞聖王后, 眞宗, 孝純王后祔廟都監儀軌 규 13587』, 1778년.

『英祖國葬都監儀軌 규 13581』, 1776년.

『英祖廟號都監儀軌, 규13301』, 1890년.

『翼宗大王追上尊號神貞王后加上尊號憲宗大王追上尊號孝顯王后追上尊號孝定王后加上尊號哲宗大王追上尊號哲仁王后加上尊號都監儀軌, 규13408』, 1866년.

『翼宗神貞王后高宗孝定王后明成王后上號都監儀軌, 규 13425』, 1892년.

『翼宗神貞王后憲宗孝顯王后孝定王后上號都監儀軌, 규 13403』, 1853년.

『翼宗神貞王后憲宗孝顯王后孝定王后上號都監儀軌, 규 13403』, 1853년.

『翼宗追崇都監儀軌, 규 13396』, 1835년.

『仁元王后·淑嬪·英祖·貞聖王后 尊崇都監儀軌 규 13269』, 1756년.

『仁元王后·英祖·貞聖王后 尊崇都監儀軌 규 13286』, 1740년.

『仁元王后·英祖·貞聖王后 尊崇都監儀軌 규 13292』, 1752년.

『仁元王后 尊崇都監儀軌 규 13288』, 1747년.

『仁祖國葬都監儀軌, 규 13521』, 1650년.

『仁祖妃 仁列王后 祔廟都監儀軌 규 13524』, 1651년.

『仁祖仁烈王后 莊烈王后 孝宗仁宣王后 高宗明憲太后 明成皇后 上號都監儀軌, 규 13246』, 1900년.

『莊獻世子 惠嬪 上尊號都監儀軌, 규 13339』, 1855년.

『貞純王后, 莊獻世子, 惠嬪 尊號都監儀軌 규 13297』, 1784년.

『貞純王后, 莊獻世子, 惠嬪 尊號都監儀軌 규 13316』, 1795년.

『貞純王后 尊崇都監儀軌 규 13306』, 1778년.

『貞純王后 孝懿王后 尊崇都監儀軌, 규 13319』, 1802년.

『正祖大王 國葬都監儀軌 규 13634』, 1800년.

『定宗定安王后 諡號都監儀軌 규 13243』, 1681년.

『朝鮮王朝實錄』

『宗廟謄錄 上·下』

『哲宗國葬都監儀軌, 규 13844』, 1865년.

『哲宗哲仁王后 上尊號都監儀軌, 규 13479』, 1863년.

『太祖諡號都監儀軌 규 14927』, 1683년.

『太祖神懿王后 神德王后 莊祖肅敬王后 正祖孝懿王后 純祖純元王后 翼宗神貞王后 追尊時儀軌, 』

『憲宗孝顯王后 嘉禮都監儀軌, 규 13139』, 1837년.

『憲宗孝顯王后 祔廟都監儀軌, 규 13796』, 1851년.

『顯宗國葬都監儀軌, 규 13539』, 1675년.

『孝懿王后 冊禮都監儀軌 규 13116』, 1778년.

『孝宗國葬都監儀軌, 규 13527』, 1659년.

규 13236』, 1899년.

2. 한국어문헌

국립고궁박물관, 『어책조사연구 결과보고서 2』, 국립고궁박물관, 2013.

_____, 『조선왕실 御冊 조사 학술연구 결과보고서 1』, 국립고궁박물관, 2012.

_____, 『조선왕실 御冊 조사 학술연구 결과보고서 2』, 국립고궁박물관, 2013.

- 국립문화재 연구소, 『국역 國朝喪禮補編』, 민속원, 2008.
- _____, 『국역《正祖國葬附廟都監》3』, 민속원, 2005.
- 국립문화재연구소(편), 『한국역대 서화가 사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 김미라, 「조선 왕실 옥책 내함 제작시기 연구」, 『古宮文化』9, 2016.12.
- _____, 「朝鮮後期 玉冊 內函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2.
- 김삼대자,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보인록 연구」, 『조선왕실의 御寶 2』, 국립고궁박물관, 2010.
- 김중준, 「1859년(철종 10) 순원왕후의 부모와 순원왕후부모도감의궤」,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3-2004.
- 백인산, 「조선시대 목죽화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서울대 규장각(편), 『규장각 소장 분류별 의궤 해설집』, 서울대 규장각, 2005.
- _____, 『규장각소장의궤 해제집 1-3』, 서울대 규장각, 2003-2004.
- 안희재, 「조선시대 국상의례 연구: 국왕국장을 중심으로」, 2010.
- _____, 「조선후기 發軔班次의 변화와 의미」, 『한국학논총』 제34권, 2010.
- 유미나, 「조선 후반기 시책 내함의 니금 서수도 연구」, 『美術史學』 32, 2016.8.
- 유지은, 「옥책의 보존과 분석을 통한 시대별 제작 기법 연구」, 용인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2.
- 이선옥, 「조선중기 매화도 화풍의 특징과 영향」, 『미술사학연구』, 한국미술사학회 제249권, 2006.
- 이현진, 「조선후기 종묘 전례 연구」, 일지사, 2014.
- 장경희, 『조선왕실의 궁릉의물』, 민속원, 2013.
- _____, 『의궤 속 조선의 장인 1, 2』, 솔과학, 2013.
- 최승희,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1989.
- 최연식, 「고려시대 국왕문서의 종류와 기능」,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0.

3. 동양어문헌

- 邢志良, 「唐玄宗及宋眞宗禪地祇玉冊」, 『古玉論文集』, 國立故宮博物院, 1983.
- 鄧淑蘋, 「唐宋玉冊及其相關問題」, 『故宮文物月刊』 106, 1981.
- 張麗端, 「宋眞宗禪地玉冊及玉畝片」, 『故宮文物月刊』 200, 1999.

국문초록

玉册 内函은 옥책을 담았던 목조함이다. '내함'이라는 것은 옥책을 二重의 함에 담았기 때문에 1차적인 것을 내함, 그 내함을 담았던 것을 外函이라 구분한 것으로 의궤 기록을 따라 명명한 것이다. 내함은 외함과 다르게 주칠에 화려한 泥金 장식을 한 것이 특징이다.

조선 왕실은 왕비 책봉과 왕과 왕비의 상존호 의례를 위해 옥책과 함을 동시에 제작하였다. 국왕이 승하하면 祔廟儀에서, 생전에 받은 옥책이 담긴 함들 모두를 각각의 彩輿에 실어 종묘 神室에 봉안하였다. 이는 왕실을 찬미하는 내용의 頌德文을 담고 있는 옥책은 결국 왕실의 권위와 위치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표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옥책을 담았던 내함 역시 증시 되었으며, 『儀軌』를 비롯한 『宗廟謄錄』 등에 내함의 형태와 제작을 위한 물자·참여 인원 등에 관한 자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현재 국립 고궁박물관에는 250 여점의 옥책과 내함이 함께 소장되어 있다. 옥책에는 제작 연도가 명기되어 있는데 그 시기는 1545년부터 1900년대 전반에 해당하며, 옥책을 통해 그것을 담았던 각 내함의 제작 연도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런데 긴 세월동안 전해 오면서 옥책과 내함이 대체 혹은 교체된 경우가 생기면서 내함의 제작 연도가 뒤섞이게 되었다.

이에 옥책 내함의 제작 연도를 확인하는 작업은 고궁박물관의 〈2013年 御册 調査 事業〉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필자는 이 사업에 참여 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내함 250 여점 중 지금까지 120점의 제작 연도를 밝힌바 있다. 제작 연도를 밝힌 내함은 1649년-1902년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17-19세기의 옥책 내함으로 한정하여 서술하였다.

본 논문은 이 120점을 기준으로 내함의 형식 특징과 변화양상에 주목한 것이다. 내함은 왕실 목공예품으로서 경공장과 도화서 화원이 참여하였고, 주칠과 니금의 고급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그리고 의궤라는 방대한 자료가 뒷받침하고 있는 제작 연도를 알 수 있는 편년 유물로서 그 미술사적 가치는 뚜렷하다. 또한 옥책 내함의 연구는 목공예와 금속 공예, 칠공예의 공예적인 측면 뿐 아니라, 칠 표면의 화려한 니금 그림 장식은 회화사적인 편년 자료로서도 역시 중요할 것이다. 더불어 논문에서는 120점에 준한 편년 연구에 기초하여, 내함 외 왕실에서 주관하여 제작한 목공예품의 제작 연도를 밝히는 활용 연구 방안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옥책 내함의 편년 연구는 왕실공예품인 옥책 내함의 미술사적 가치와 의의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며, 본문에서 언급한 내함의 역할과 의미 그리고 제작 배경을 통한 그 역사적인 위상 또한 내함의 연구 가치를 강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Abstract

The Stylistic Development of the Inner Cases of Books Made of Jade for the Joseon Royal Court during the Seventeenth to the Nineteenth Centuries

- With a Focus on the Structure, Metal Decoration, and Golden Painting of the Inner Cases

Kim Mi Ra*

An Inner Case of a Book Made of Jade is a wooden container where a Books Made of Jade was stored. Because the container was encased in an additional container, it was named “Inner Case” according to the Royal Protocols. Unlike its Outer Case, an Inner Case was decorated with golden pigment over its lacquered body.

During the Joseon Dynasty, Books Made of Jade and their cases were made at the same time for the installation of the queen and the royal ritual in which the king and the queen assumed honorific titles. After the king passed away, each of the cases of the Books Made of Jade that the king had been previously bestowed were loaded in a colored palanquin and enshrined in the Spirit-tablet Chamber of the Royal Ancestral Shrine during the Enshrinement Ceremony. Books Made of Jade functioned as the symbolic support for royal authority, since they record royal virtues. Thus, their Inner Cases as well as the books themselves were greatly cherished, and the people and materials involved in making them and their appearance were documented in the Records of the Royal Ancestral Shrine including the

* Cultural Heritage

Royal Protocols.

Currently,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holds around 250 pieces of Books Made of Jade and their cases. They were made from 1545 to the first half of 1900s, according to the production dates recorded in the Books Made of Jade. The records also tell when each of their Inner Cases was produced. However, over the prolonged history of their transmission, some of the Books Made of Jade and their Inner Cases were substituted or replaced by different ones, and this brought confusion in establishing the chronology of the Inner Cases.

Thereupon, it was initiated to investigate the production years of the Inner Cases with the 2013 Project of Inspecting Imperial Books in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The author has been conducting research about the Inner Cases ever since the project, and identified the production years of 120 pieces among the 250 pieces held in the museum. Those whose production dates have been confirmed were made between 1649 and 1902, and thus the present paper analyzes only the Inner Cases from seventeenth to nineteenth centurie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tylistic development of the Inner Cases of the 120 pieces. Inner Cases of Books Made of Jade are invaluable as art historical materials in several aspects. As the Inner Cases were made for the royal court, Seoul craftsmen and painters in the Royal Academy of Painting were involved in its production; high-quality materials including lacquer and powdered gold were invested; they were documented in the massive historical records *Uigwe*; their production years are identifiable; the golden painting on their lacquered surfaces could provide crucial evidences not only for the study of crafts in wood, metal, and lacquer, but also for the research about the chronological development of painting in the same period; and lastly, they could be utilized in reconstructing the chronology of wooden crafts made for the royal court other than the Inner Cases.

In the end, this study about the chronology of the Inner Cases of the Books Made of Jade illuminates the art-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Inner Cases as well as their historical value by investigating the role they played, the importance they carried, and the ways in which they were produced.